

안동의 풍수경관 연구*

- 음택 명당을 중심으로 -

옥 한 석**

A Study on the Pungsu Landscape of the Myungdang Tomb Sites in Andong Area*

Han Suk Ock**

요약 : 이 연구는 안동의 이른바 음택명당 풍수 경관에 대하여 조사하여 그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동문화원에서 펴낸 『안동의 분묘』에 나오는 분묘와 예천의 일부 묘지를 대부분 야외조사하고, 이 중에서 형기론적 입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명당의 특징을 1:25,000지형도 상에서 기술한다. 안동지역은 낙동강, 반변천, 길안천의 수많은 지류가 흐르고 그 주위에 낮은 구릉, 완만한 사면 및 높은 배후 산지가 전개되며 수많은 명당이 입지한다고 알려져 왔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동의 경우는 날짐승(봉, 학, 평), 꽃(모란, 연꽃, 칠녕쿨), 길짐승(닭), 들짐승(거북, 뱀), 물건(등잔, 가마솔, 밥상), 용, 달 등의 형기론적 명당이 나타나며, 이들 형태는 크게 낙동강 본류 이북 쪽에 집중한다. 이들 명당은 고도 상으로 해발고도 100m~400m 부근에 대부분 입지한다. 이들 명당의 공통된 형태적 특징은 반개방성, 중첩성, 안정성, 조화성, 균형성이다. 형태 상의 이러한 특징은 풍수지리의 원리를 오늘날의 입지 선정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하는 것이다.

주요어 : 음택명당, 풍수 경관, 형기론, 형태적 특징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forms and characteristics of *Myungdang* tomb sites in *Andong Area* by conducting field trips and analyzing on topographic maps. Most *Myungdang* sites are concentrated around hills, mountains, and tributaries that collectively are located in a northern parts of *Nakdong* river. The river and the mountain, which the principle of Pungsu, so called *Jangpung and Duksu*, is applied to, constitute the various forms. They provide the sites with physical settings for *Myungdang* that can be said to commonly retain such properties as semi-openness, multi-surroundedness, stability, harmony, balance. It can be further argued that those properties of *Myungdang* sites offer criteria for human settlement and sustainable land development in the current world.

Key Words : *Myungdang* tomb site, *Pungsu* landscape, *Hyungkinon*, property of physical settings

1. 머리말

1) 연구목적

풍수지리의 밑바닥에 흐르는 논리는 무엇보다도 산을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로 간주하여, 사람에게 기운이 있는 것과 같이 산이 지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지기가 강하게 집결되는 곳에 살

거나 묘지를 쓰게 되면 본인과 그 자손이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상당히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입장을 탈피하여 계절과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자 한 우리 선조의 생활태도와 소박한 철학이 배어있는 전통적인 자연관이라는 입장에서 풍수지리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른바 명당의 산과 수로 이루

* 본 연구는 2000년도 강원대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ock@kangwon.ac.kr

어진 풍수 경관을 조사하여 그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형태와 특징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풍수지리의 원리를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적용 가능성은 땅의 길흉을 예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한다는 의미이다(윤홍기, 2001). 명당의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이 연구는 두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답을 해야 한다. 첫째는 어느 지역의 어떤 명당의 형태와 특징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연구지역과 연구방법)? 둘째는 명당의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는 이러한 입장이 과연 풍수지리의 본질에 접근하는가(형태연구와 풍수지리의 본질)? 하는 문제이다.

2) 연구 지역과 연구 방법

첫째로 어느 지역의 어떤 명당의 형태와 특징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하는 연구방법에 대하여 논의해 보자.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택, 즉 집자리에서는 그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음택, 묘지에서는 미세한 논리를 갖게 되므로(한동환 외, 1994) 이 연구는 묘지 풍수를 중심으로 하여 음택 명당의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그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는 일은 경관적인 분석을 말하게 되므로 이 연구는 묘지를 중심으로 하여 풍수 경관을 살펴보는 것이다.

풍수경관을 이해하고자 할 때 가능하면 일정 범위 안의 자연 조건이 비슷한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 내에 있는 명당을 조사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는 안동 부근을 사례 연구 지역으로 선정한다. 안동은 『택리지』에 의하면 '예안·안동·순흥·영천·예천 등의 고을은 이백의 남쪽에 있는데 이곳은 신이 내린 복지이다. 태백산 밑은 산이 평평하고 들이 넓어 밝고 수려하며, 모래가 희고 흙이 단단해서 기색이 완전히 한양과 같다'고 하였다(허경진, 1996).

『택리지』에서 안동 지역이 길지라고 하므로 양택 뿐 아니라 명당에 해당되는 묘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안동문화원에서 발간한 『안동의 분묘』라는 책에 소개하고 있는 안동의 주요한 분묘 즉, 묘지를 답사하고 그 중에서도 명당에

해당되는 것을 선정하여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지역에 부근의 예천 일부가 포함되었으며, 명당의 다양한 형태를 풍부하게 소개하기 위하여 『안동의 분묘』에 나오지 않는 묘지도 몇 개 추가하였다. 답사를 통해서 명당으로 확인된 묘지들의 공통된 특징을 파악하면 바로 그것이 풍수 경관의 이해가 된다. 형태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안동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완규의 풍수론적인·역사적인 연구가 있다(이완규, 2001).

음택 명당 풍수 경관의 형태와 유형, 그리고 그 특징을 알고자 하는 시도는 특정 장소에 대한 경관론적 입장이다. 경관지리학(Landschaft Geographie)의 입장이 형태와 형태를 이루는 요소들의 분석에 있으므로 명당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분석된다면 경관지리학은 명당의 이해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떤 곳이 명당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개별 묘지가 명당이라고 일컫는 문헌(족보나 문집 등)이나 이에 대한 해당 집안의 구전을 통해서도 명당 여부를 알 수 있지만 연구 대상 전체 묘지에 대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다. 어떤 묘지가 명당인지 알기 위해 여러 풍수지리 서적들을 탐독하였으며 1991년 이후 10여 차례 답사가 이루어졌다. 미심쩍거나 부족한 부분은 어떤 풍수사의 도움을 받아 보완하였다¹⁾. 명당의 판별은 풍수사의 수학 배경과 주관이 상당히 작용을 하므로 그의 견해를 나름대로 비판, 수용하였으며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명당은 전적으로 필자의 견해이다.

그러나 명당 풍수 경관의 형태와 유형, 그리고 그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명당 경관을 이루고 있는 요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풍수사나 풍수연구자들은 명당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산, 수, 방위라고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산, 수, 방위를 중심으로 한 현장에서의 관찰과 1:25,000 지형도 상에서의 지도 읽기에 의하여 명당의 형태와 특징을 분석, 기술하게 된다. 사실 명당의 형태와 특징은 1차적으로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범위 내에 있는 모두를 모두 기술해야 하므로 그것이 쉽지 않다. 이를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한정하여 기술한다. 이 중에서 혈처와 명당 그 자체의 모습은 1:25,000 지형도 상에서 기술하기 어렵다. 오히려 1:5,000 지도 상에서 기술할 수 있는데 지면 관계

상 1:5,000 지도 상에서의 기술은 생략하고 설명으로 대신한다.

- 음택 명당을 중심으로 하여 앞산(안산과 조산)까지 시야가 어떠한가?
- 음택 명당을 산줄기(청룡과 백호)가 어떻게 에워싸고 있는가?
- 음택 명당의 혈처와 명당 그 자체의 모습은 어떠한가?
- 음택 명당을 에워싸고 있는 산줄기 상의 봉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 음택 명당을 중심으로 하여 볼 때 묘지의 방향은 어떠한가? 물은 어떻게 흐르는가?

3) 경관 연구와 풍수지리의 본질

명당을 이루는 산, 수, 방위의 요소에 관한 현장에서의 관찰과 1:25,000 지형도 상에서의 분석은 과연 풍수지리의 본질을 아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두번째 질문인 명당의 경관 연구가 풍수지리 본질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답해 보고자 한다.

우선 명당을 찾는 방법으로는 이기론, 형기론, 기의 체험, 마음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 이기론이나 형기론의 방법이 기의 체험이나 마음으로 보는 방법보다는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생각되어 이 연구는 형기론에 의하여 연구하게 된다. 형기론은 간룡법, 장풍법, 득수법, 좌향론, 점혈법, 형국론으로 구성되며 최종적인 단계는 형국론이라고 최창조는 말하였으며(최창조, 1984, 39) 이는 상응하는 형체에 기가 내재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 필자는 형국론이 산천의 형세를 사물이나 문자, 사람, 식물, 동물 등에 비유해서 명하는 체계에 끝나지 않고 간룡법, 장풍법, 득수법, 좌향론, 점혈법 모두가 여기에 귀결되는 하나의 체계라고 본다. 이 연구에서 형국을 본다는 것은 바로 명당을 형기론의 방법으로 본다는 것이다.²⁾ 형국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기론적 연구는 명당의 경관 연구에 이르게 된다. 형국론으로 말미암아 형기론적 연구가 경관지리학과 일맥 상통하게 된다. 산, 수, 방위로 이루어진 명당의 형태와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가 형기론과 일맥상통하게 되므로 경관 연구는 풍수지리의 본질에 근접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기론과 형기론, 양자의

입장을 대비시켜 보다 더 자세히 논의하면 명확해진다. 형기론에서는 형국에 의하여 산수의 배치를 보게 되지만 이기론에서는 나경(파철 또는 나침반)에 의한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산수의 배치를 보게 된다. 이기론에서는 나경이 표시하는 음양오행에 의한 생기가 넘치는 방위에서 혈을 맺고, 생기가 넘치는 방위에서 득수를 할 수 있도록 점혈을 한 다음 길한 연월일시를 정하여 망자의 사주에 따라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송길룡, 1995). 다시 말해 이기론에서는 천간지지(天干地支)와 음양오행 원리를 이용하여 나타난 1선에서 9선까지의 다양한 음양의 배합을 혈처의 방위에 활용하는 한다. 그래서 이기론에서는 좌향을 정하고 운이 맞는 매장의 일시를 정하거나 일시를 정해놓고 좌향, 이른바 방위를 정하기도 한다.

이기론과 달리 형기론에서는 전후좌우 고·저경 중에 의하여 생기가 넘치는 방위를 찾게 되며 나경(羅經)은 방위를 표시하는데 이용될 뿐이다. 4선의 24방위로 좌향이 표시된다. 그래서 형기론에서는 이기론과 달리 망자의 생전 업적이나 자녀의 효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장익호, 1983: 장지환). 다시 말해 형기론에서는 매장의 연월일시와 망자의 생년일시가 중요하지 않다. 좌향은 명당의 형체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형기론은 장법(葬法)을 소홀히 하지는 않지만 혈처의 방위가 음양오행에 부합해야 한다든지 장사의 택일이 길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장사의 일시에 따라 좌향이 정해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풍수적 비보에 기능상으로 형국비보(形局裨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보와 형기론의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³⁾. 양자가 풍수지리의 본질을 아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관 연구에서 이기론의 천간지지와 음양오행의 원리를 분석할 수는 없다. 이기론이 산세를 보지만 궁극적으로 음양오행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안동의 산세와 음택 명당의 분포

1) 안동의 산세

음택 명당의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알기 전에 먼저 안동이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한다. 안동의 산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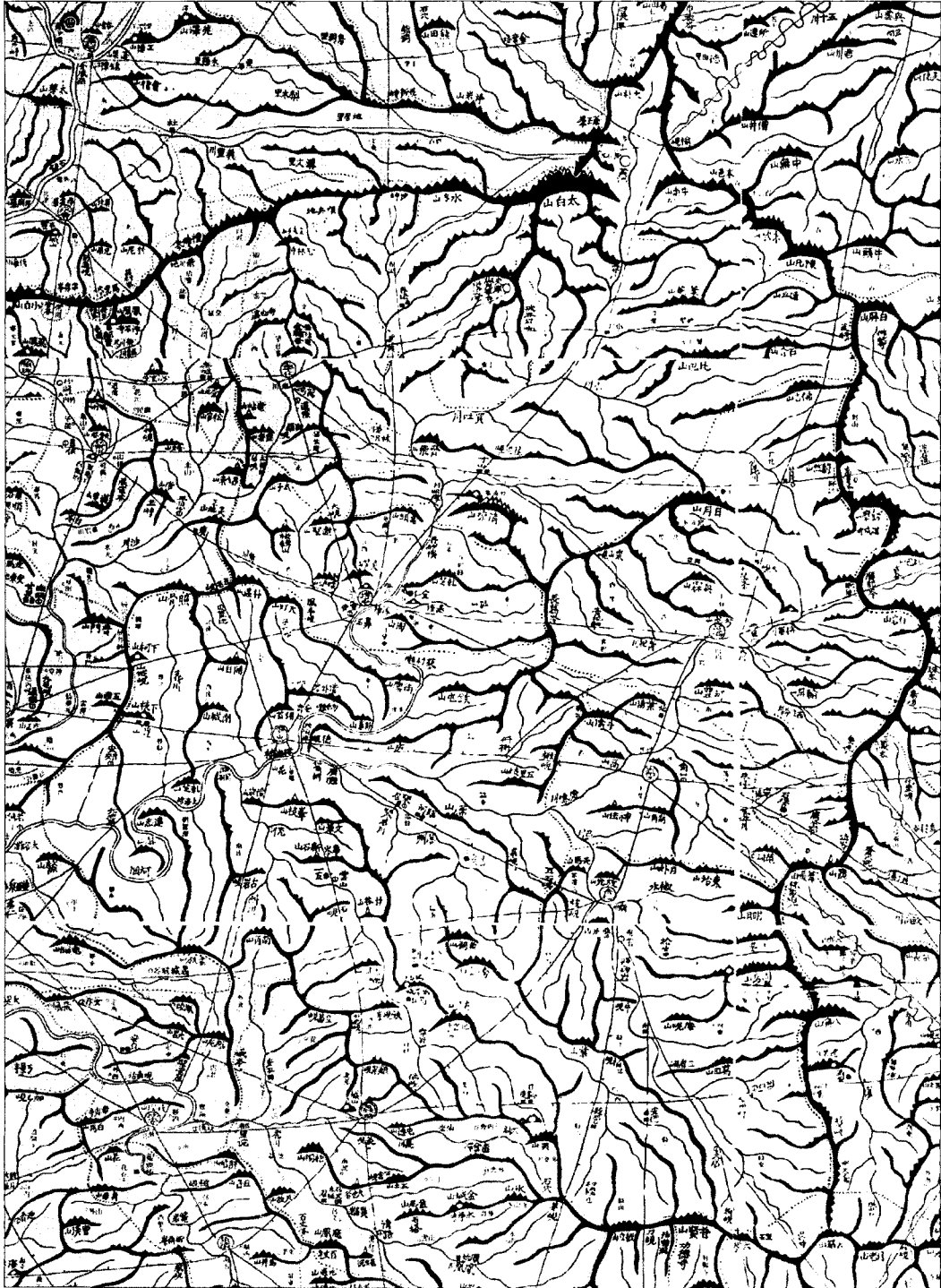


그림 1. 산경과 수경으로 본 『대동여지도』 상의 안동(안동부, 영양현, 진보현, 예안현, 청송현 등)

* 흰 부분은 안동을 에워싸고 있는 산세를 보여준다. 태백산을 중조로 한 산줄기가 서쪽으로 조골산으로, 또 다른 줄기가 동쪽으로 백암산, 보현산으로 흘러 하회마을 하류 대곡탄에서 만난다.

자료: 광우당 복간 대동여지도, 1990.

다. 풍수경관이란 명당에 서서 주위의 가지적인 경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아주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 하나하나, 그리고 봉우리 사이에 어떤 강이 흐르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이 바로 산세이다. 안동에 나타나는 특정 명당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산수의 배치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박시익, 1999) 안동의 산세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러면 안동의 산세는 어떠한가? 북쪽으로 봉화군, 동쪽으로 영양군·청송군, 남쪽으로 의성군, 서쪽으로 예천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안동군은 태백산 황지에서 발원한 낙동강, 일월산에서 발원한 반변천, 주왕산에서 발원한 청송천, 보현산에서 발원한 길안천의 네 하천이 서로 합류하는 곳이다. 낙동강과 그 지류, 이른바 낙동강 본류와 지류가 합류하고 곡류하는 가운데 수많은 산과 지류가 나타나고 이들 산과 지류에 의하여 명당이 출현한다. 안동 부근의 주요 산과 산을 있는 줄기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줄기가 백두대간이다. 백두대간 상에 태백산, 일월산(1219m), 주왕산(721m), 보현산(1124m), 황학산이 나타나며, 태백산, 소백산을 잇는 낙동정맥 상에 학가산 등이 있다.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이 안동 부근을 에워싸게 되는 것이다.

『대동여지도』(그림 1)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1의 태백산에서 소백산을 잇는 낙동정맥 상의 문수산(1206m)에서 하나의 지맥이 남쪽으로 흘러 태자산, 박달산, 오적산, 학가산(870m), 보문산(643m), 검무산(331m)을 이루어내어 안동의 서쪽 산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태백산에서 남쪽을 향해 바라보면 우백호에 해당된다. 좌청룡은 다음과 같다. 태백산에서 백병산, 일월산, 주왕산(대동여지도에서는 주방산으로 표기), 보현산, 황학산, 오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그것이다. 이들 우백호와 좌청룡은 서쪽 끝에 가까이 마주하게 되는데 안동군 풍천면의 구담리가 바로 그곳이다. 구담리에서 낙동강 본류가 서류하여 선산에 이르게 된다. 학가산으로 대표되는 백호와 일월산·주방산·보현산으로 대표되는 청룡 사이에 옛날 이름으로 예안현, 안동부, 영양현, 진보현, 청송군이 입지하였다. 오늘날은 안동시, 예천시·영양군·청송군의 일부가 자리한다.

2) 안동의 음택 명당 유형과 분포

안동에는 다양한 분묘가 분포한다. 수많은 묘지들 중에서 비교적 거주 역사가 오래되고 주요 씨족이며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인물들의, 이른바 명문 씨족들의 분묘에 관해서 『안동의 분묘』가 잘 소개하고 있다(서주석, 1995)⁴⁾. 『안동의 분묘』에 의할 것 같으면 가장 오래된 묘는 안동 권씨 시조 묘소이다. 문헌상으로 고려시대에까지 소급된다. A.D. 1300년 경(고려 충렬왕 26년)의 김방경, A.D. 1413년과 A.D. 1439년의 배상지 부부의 분묘도 이때 것이다.

이들 분묘 중에서 형기론에 의한 명당, 소위 국(局)이 작으며 산수가 잘 짜여지게 되고, 하나의 형태 또는 체형(體形)으로 형상화되는⁵⁾ 명당은 소수이다. 형기론의 형국에 의한 명당의 형태에는 주로 날짐승, 들짐승, 길짐승, 사람, 물건 등이 등장한다(최창조, 1992). 날짐승에는 또 다시 봉 학 제비 기러기 꿩 등이, 길짐승에는 소 닭 말 등이, 들짐승에는 호랑이 사자 쥐 뱀 등이 있다. 사람에는 선인(仙人)이 있으며 여자의 경우 옥녀라고 불렀다. 선인과 옥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물건에는 등, 병, 의복 등을 가지고 비유하였다. 이들 이외에 용, 꽃, 물고기 등도 있을 수 있다⁶⁾.

안동의 산세는 큰 하천과 그의 지류, 낮은 구릉, 완만한 사면 및 높은 배후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명당을 수십 가지의 형태로 상징화시킬 수 있다. 안동의 경우는 봉 학 꿩 등의 날짐승, 모란연꽃 칩냉쿨 등의 꽃, 닭 등의 길짐승, 거북 뱀 등의 들짐승, 등잔 가마솥 밥상 등의 물건, 기타 용 달 등의 명당이 나타난다. 안동 부근에 나타나는 이들은 모두 33가지인데, 그 빈도수를 보면 모란 꽃이 4곳, 봉이 4곳 나타난다. 2곳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비가 2곳, 가마솥이 2곳, 밥상이 2곳, 꿩이 2곳, 칩냉쿨이 2곳이다. 이들 빈도로 보아서 안동의 경우 모란형과 봉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늙은 쥐가 밭으로 내려오는 형(노서하전형, 老鼠下田形), 장군이 앉아서 군졸들을 살펴보는 형(장군대좌형, 將軍對坐形) 등은 나타나지 않지만 대부분의 유형이 나타나, 음택명당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 수 있기에 충분하다. 이들 형태의 분포는 그림 2와 같으며 묘지의 위치는 그림 2의 번호로 표시되어 있다. 이들 묘지의 매장자는 특정 가문의 권위와 관계되므로 자세히 소개하지 않는다⁷⁾.

- 봉이 등우리를 친 형(봉소형, 鳳巢形)(①, ⑩)
- 제비가 등우리를 친 형(연소형, 燕巢形)(②, ③)
- 뱀이 머리를 든 형(사두형, 巳頭形)(④)
- 가마솥이 걸려있는 형(복부형, 伏釜形)(⑤, ⑫)
- 밥상에 음식을 차려놓은 형(금반형, 金盤形)(⑥, ⑮)
- 연꽃이 물위에 떠 있는 형(연화부수형, 蓮花浮水形)(⑦, ⑧)
- 학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형(비학상천형, 飛鶴翔天形)(⑨, ⑭)
- 꿩이 매를 피해 숲에 숨는 형(복치형, 伏雉形)(⑩, ⑲)
- 모란 꽃이 반쯤 피어있는 형(모란반개형, 牡丹半開形)(⑪, ⑰, ⑱, ⑳)
- 구름속에 달이 떠 있는 형(운중반월형, 雲中半月形)(⑫)
- 등잔불이 달려 있는 형(괘등형, 卦燈形)(⑬, ㉑)
- 칠푼쿨에 꽃이 피어 있는 형(갈화반개형, 葛花半開形)(⑭, ⑱)
-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금계포란형, 金鷄包卵形)(⑳)

- 학이 냇가로 내려오는 형(가학조천형, 嘉鶴朝川形)(㉒)
- 거북이 물에 들어가는 형(영구입수형, 靈龜入水形)(㉓, ㉔)
-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비룡상천형, 飛龍翔天形)(㉕)
- 큰 뱀이 숨어있는 형(장사은산형, 長巳隱山形)(㉖)
- 벌이 집을 지은 형(봉소형, 蜂巢形)(㉗)
- 봉이 날아가는 형(비봉형, 飛鳳形)(㉘, ㉙)

이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크게 낙동강 본류 이북쪽에 집중한다. 지형적으로 보면 낙동강 본류의 남쪽이 등고선이 조밀하여 산지가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지가 가파르면 험처가 상당히 높은 곳에 뻗히기 쉽기 때문에 비교적 접근하기가 쉬운 구릉성 산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 북쪽에 명당이 산재하게 되었다고 본다. 고도 상으로 해발고도 100m~400m 부근에 대부분 입지한다. 무릇 명당이란 안산과 조산을 넘어 득수가 잘 이루어져야 하므로 낙동강 본류의 여러 지류를 향하여 분포하는 것은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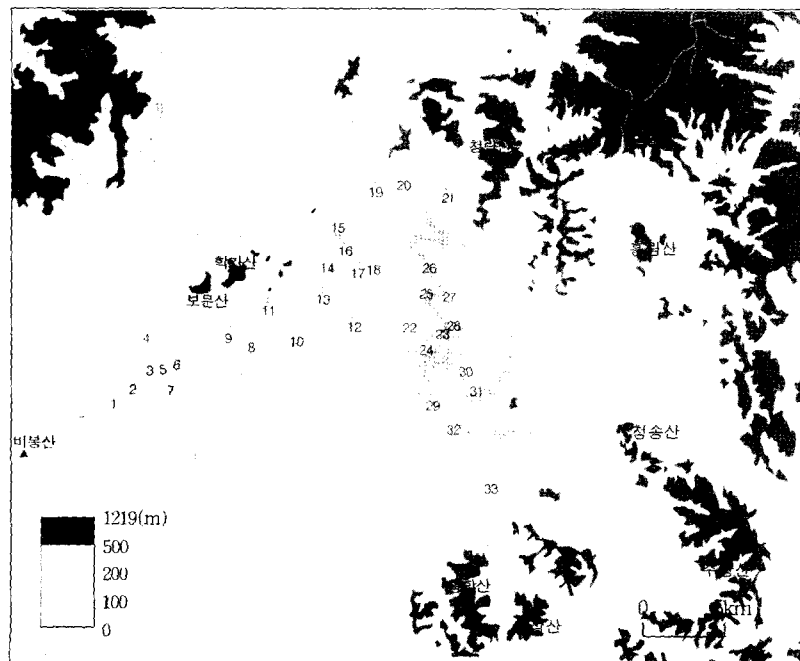


그림 2. 안동의 명당분포

3. 음택 명당의 형태과 그 특징

1) 개별 음택 명당의 형태와 그 특징

이제 안동에서 나타나는 음택 명당의 유형별 형태와 그 특징을 살펴보자. 여기서 형태란 형기론의 형국을 말하며, 그 특징이란 다양한 체형과 크기에 의한 형태 상의 특징을 말한다. 명당의 3대 요소인 산, 수, 방위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기술된다.

- 음택 명당을 중심으로 하여 앞산(안산과 조산)까지 시야가 어떠한가?
- 음택 명당을 산줄기(청룡과 백호)가 어떻게 에워싸고 있는가?
- 음택의 혈처와 명당 그 자체의 모습은 어떠한가?
- 음택 명당을 에워싸고 있는 산줄기 상의 봉우리 모습이 어떠한가?
- 음택 명당을 중심으로 하여 볼 때 묘지의 방향은 어떠하며 물은 어떻게 흐르는가?

이러한 특징은 1:50,000 지형도 상에서 확인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들 특징은 실제 야외조사에서 눈으로 관찰된 것이며 1:50,000 지형도 상에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명당이 입지하고 있는 곳은 지형도 상에 점(●)으로 표시하였으며 지형도 읽기에서 그 특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지형도 상의 작은 일부만이 소개되므로 명당의 특징을 지도에서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어떤 지형도는 색상이 흐려 명암이 뚜렷하지 않다.

(1) 봉이 등지를 든 형

(봉소형, 鳳巢形)⁸⁾(그림 2의 ①)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에 위치한 봉소형은 해발고도 100미터 상에 입지한다. 앞을 바라보면 신촌리를 지나는 낮은 구릉, 이른바 안산이 보이고 그 너머로 낙동강 본류가 흐른다. 낙동강 너머 겹겹이 산줄기가 전개된다. 시야가 반쯤 열려있으며 봉소혈을 에워싸는 좌우의 산줄기는 두 겹에 불과하지만 그 길이가 길고 그 끝이 안으로 굽어 있어 불러오는 바람을 막아주기에 적당하다. 또한 혈처에서 안산까지의 거리가 500m 정도로 열려있는 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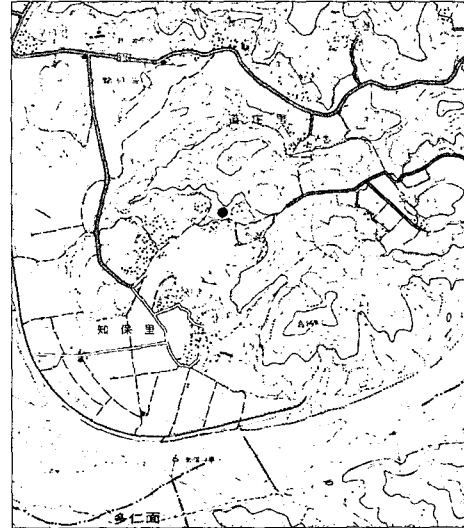


그림 3. 봉이 등지를 든 형(도엽: 풍천 NJ52-14-10-4)

다. 혈처는 밥공기를 엮어놓은 것 같은 나즈막한 구릉 상에 위치해 대단히 안정되어 보인다. 낙동강 본류가 명당을 휘어감고 있어 산과 물이 균형을 이룬다. 좌향은 거의 정남향에 가깝다⁹⁾. 봉소의 경우 앞으로 전개되는 안산, 즉 득은 거미나 죽실의 모양이 되어야 제대로 된 형태인데 이것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명당을 받쳐주는 뒷산(주산)이 웅장하고 또렷하다(그림 3).

(2) 제비가 등지를 친 형

(연소형, 燕巢形)(그림 2의 ②)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에 위치한 연소형은 마봉을 향한다. 혈처를 뒷받쳐주는 주산은 뚜렷하지 않으나 명당은 거의 “ㄷ”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산줄기가 에워싼다. 제비가 등우리를 친 형은 봉소와 같이 시야가 열려 있다. 명당에서 안산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도양리의 경우 거의 1km에 이른다. 도양리 것을 연소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전후좌우를 보았을 때 봉소보다는 혈처가 낮은 곳에 위치하며 앞산 줄기가 제비가 머물다가 올 수 있는 나무가지 모습을 하거나 앞으로 작은 호수 또는 넓은 벌판이 전개되는 조화로운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해발고도 130m 정도에 위치한 연소혈은 예천군과 안동시를 가로지르는 학가산·보문산 줄기가 검무산에서 길게 뻗어나와 에워싼다. 낮은 안산 너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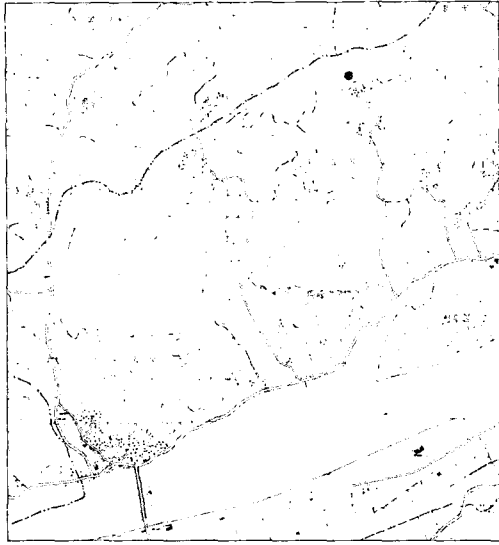


그림 4. 제비가 동지를 든 형(도엽: 풍천 NJ52-14-10-4)

마봉과 시루봉이 보이는데 언뜻 보기에는 수구가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고 낙동강 본류에 합류하는 균형성을 이룬다(그림 4).

(3) 뱀이 머리를 든 형
(사두형, 巳頭形)¹⁰⁾(그림 2의 ④)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에 사두형이 나타난다. 뱀의 형태는 주산으로부터 기복과 좌우 회룡을 보이면서 상당히 길게 구불거리다가 낮은 언덕을 보여야 하는데 오미리의 것이 그 언덕이 매우 크고 비교적 높다.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그 언덕에 혈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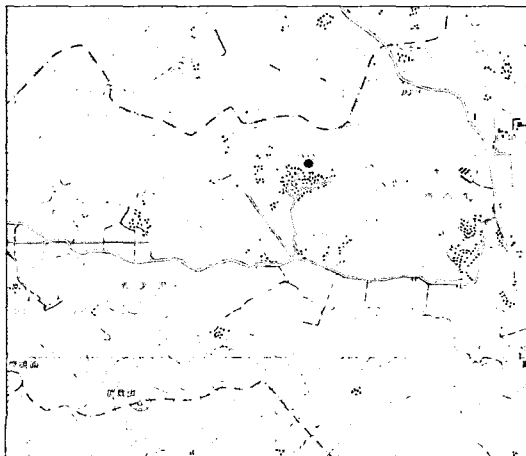


그림 5. 뱀이 머리를 든 형(도엽: 매곡 NJ52-14-11-3)

가 맺힌다. 학가산 줄기는 풍산읍의 대봉산을 이루고 다시 산득골고개를 지나 248m의 주산을 좌우로 겹겹히 에워싼다. 오미골 앞 너른 들판이 뱀이 먹이를 탐내며 달려가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는게 개방적인 특징이다. 오미리의 것을 생사추와(生巳追蛙)라고 하지 않고 사두라고 하는 데에는 개구리에 해당되는 안산이 없기 때문이다. 펼쳐진 들판에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쪽으로 흘러 산수가 균형을 이루기에 충분하다(그림 5).

(4) 가마솥이 뒤집혀 있는 형
(복부형, 伏釜形)(그림 2의 ⑤)

복부형은 주산으로부터 입수까지가 짧으며, 혈처가 가마솥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넓적하고 평평하다.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원동골의 것이 이와 꼭 같다. 검무산(331m) 줄기는 290m 정도의 주산을 이루어내고 그 아래 110m 정도의 높이에 복부형을 이루어낸다. 좌우로 용호가 가까이에서 에워싸고 있는데, 소산리 뒷산이 부싯돌처럼 생기어 조화를 이룬다. 복부형에 가보면 혈증(혈처의 증거)이 나타나며 부싯돌 모양의 작은 돌맹이가 분묘 주위에 박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리 마을 뒷산에서 앞을 향하면 낙동강 본류가 흐른다. 풍산평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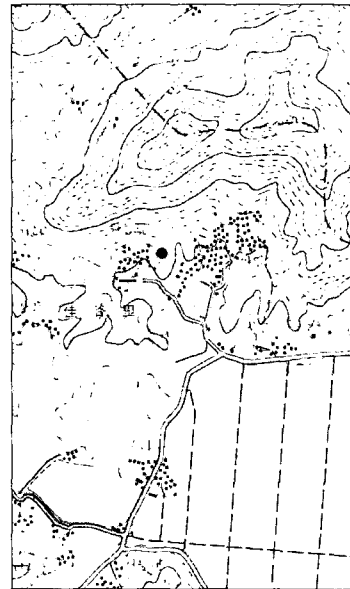


그림 6. 가마솥이 뒤집혀 있는 형
(도엽: 매곡 NJ52-14-11-3)

의 넓은 들판에 고여 있는 물과 낙동강 본류가 균형있게 배치되어 있다. 좌향은 약간 남서향으로 좌우의 산줄기가 명당을 에워싼다(그림 6).

(5) 밥상에 음식을 차려놓은 형
(금반형, 金盤形)(그림 2의 ⑥)

금반형은 복부형과 비슷하다.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역골에서 전형적인 것이 나타난다. 주산으로부터 입수까지가 길며 주위에 밥상을 차리는 여인(옥녀)과 같은 형상을 한 봉우리가 주위에 나타나야 한다. 북후면 대현리 거인에 나타나는 금반형은 소산리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며 옥녀봉이 나타나 조화를 이룬다. 즉 명당과 안산이 조화를 이룬다. 검무산 줄기가 소산리에서 일단 멈추었다가 다시 역골 뒤에 137m의 주산을 이루었는데 해발고도 100m 부근에 혈처가 나타난다. 혈처를 에워싸고 있는 산줄기가 단순하고 규모가 작지만 안산 너머 풍산들과 낙동강 본류가 흐르고 있어 득수가 잘 되어 산과 물이 균형을 이룬다(그림 7).

(6) 연꽃이 물위에 떠 있는 형
(연화부수형, 蓮花浮水形)(그림 2의 ⑦)

연화부수형은 무엇보다도 “S”자의 형태로 명당을 에워싸고 있는 물이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물의 흐름이 이상적인 형태라고 하는데, 이와 함께 정삼각형에 가까운 주산으로부터 일직선으로 혈처까지 입수하는 산의 형태가 나타나야 연화부수형

이 된다. 풍천면 하회리의 연화사 옆에 나타나는 것이 연화부수형이다. 멀리 검무산으로부터 행룡하여 온 일맥이 낙동강을 따라 동류하다가, 화산에서 소조를 이룬다. 소조에서 힘차게 기복을 이루어 낸 주산 아래 안정되게 혈처를 이루어내었으니 바로 그곳이 연화부수형이다. 모란반개와 비슷하지만 앞으로 나즈막한 득(안산)을 너머 낙동강 본류가 굽이쳐 돌고 있다. 이러한 산수의 조화가 연화부수형이지만 반드시 큰 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후면 대두서리 오동정의 경우 디곳자형으로 논이 감아 돌고 있으며 그 앞으로 상리천이라고 하는 낙동강 지류가 흐른다. 회 마을 앞의 낙동강 너머에 연화부수를 에워싸는 산줄기와 뽕죽한 필봉이 나타나 조화를 이룬다(그림 8).

(7) 학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형
(비학상천형, 飛鶴翔天形)(그림 2의 ⑧)

일명 비학형이라고도 한다. 날짐승으로 형상화되는 것으로는 봉, 제비, 학이 있는데 이들 셋은 모두 앞으로 안산이나 조산이 멀어 혈처에서 앞으로 날 수 있도록 반개방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학소나 연소, 또는 봉소의 경우는 등지를 칠 수 있도록 주산 옆으로 혈처가 정해지지만, 비학의 경우는 주산으로부터 기복과 행룡을 보이다가 앞으로 날 수 있는 지점에 혈처가 맺힌다. 혈처가 다소 불안정하다. 임동면 강천리 임당의 것에 비학형이 나타난다. 일월산-덕산봉을 잇는 작은 지맥이 임동면에 닿고, 반변천 지류인 대곡천과 낙동강 본류 사이에 형성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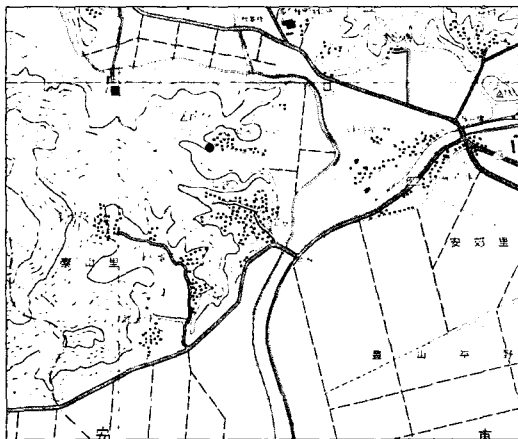


그림 7. 밥상에 음식을 차려놓은 형
(도엽: 매곡 NJ52-14-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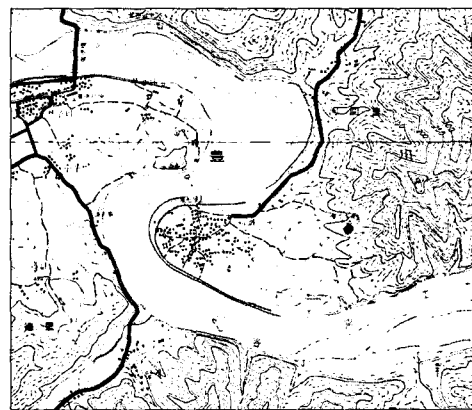


그림 8. 연꽃이 물위에 떠 있는 형
(도엽: 매곡 NJ52-14-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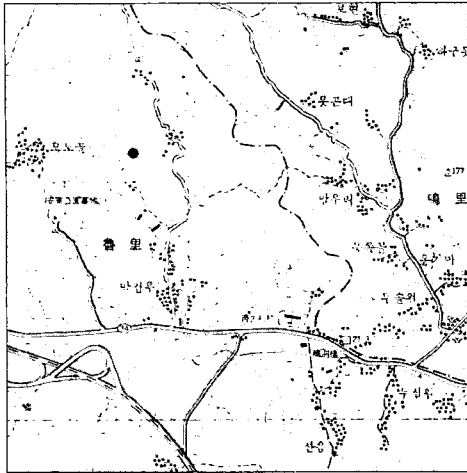


그림 9. 학이 하늘로 날아 오르는 형
(도엽: 안동 NJ52-14-11-4)

좁고 긴 능선에 크고 작은 산봉우리가 전개된다. 임당 뒷산에서 수차례의 기복을 이룬 다음 좁은 골짜기를 향하고 멀리 반변천을 바라보는 곳에 비학상천혈이 맺혀있다. 그 높이는 220m 정도이다(그림 9).

(8) 꿩이 매를 피해 숲에 숨는 형
(복치형, 伏鳩形)(그림 2의 ㉘)

복치형은 주산에서 입수까지가 가파르고 혈처 가까이에 새가 숨는 것처럼 방향이 바뀌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야 한다. 또한 뒤쪽이나 옆쪽 방향에 매나 독수리의 형상을 한 봉우리가 나타나야 한다. 와룡면 도곡리 밧돛질에 바로 그것이 나타난다. 이는 조화로운 특징이다. 지도를 보면 혈처 뒷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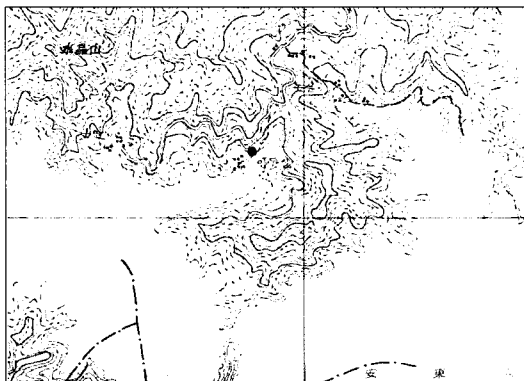


그림 10. 꿩이 매를 피해 숲에 숨는 형
(도엽: 남선 NJ52-14-12-3)

등고선 간격이 좁다. 밧돛질의 서쪽 수정산에서 힘차게 행룡하여 나타난 주산 아래 복치혈이 맺혀있는데 바로 좌청룡이 길게 뻗어 나와 득을 이루어 좌우를 에워싸게 된다. 득 너머에 낙동강 본류가 흐르며 조산이 겹겹이 펼쳐진다. 혈처는 200m 정도의 높이에 입지하며 득까지의 거리가 500m로서 반쯤 열려 있다(그림 10).

(9) 모란꽃이 반쯤 피어있는 형
(모란반개형, 牡丹半開形)(그림 2의 ㉙)

모란혈의 특징은 어떠한가? 그것은 모란꽃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꽃잎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듯이 주산 아래의 혈처를 중심으로 하여 진후좌우산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어야 하고 큰 물은 없어도 무방하다. 안동은 구룡성 산지가 펼쳐져 있으므로 모란혈이 나타나기 쉽다. 단지 연화부수처럼 주산으로부터 혈처까지가 꽃술처럼 곧고 짧아야 한다. 서후면 성곡리 권태사묘, 와룡면 서현리 달음재 부근, 녹전면 신평리 범바위, 와룡면 나소리 연산 부근에 이러한 혈이 떨어진다. 이들 모두는 주산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가지가 득을 이루며 조산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 서후면 성곡리 권태사묘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그림 11).

(10) 구름 속에 달이 떠 있는 형
(운중반월형, 雲中半月形)(그림 2의 ㉚)

구름 속에 달이 떠 있는 형은 명당에서 앞을 바라보면 안산과 조산이 구름처럼 겹겹히 좌우로 펼쳐져 있고 그 사이에 보름달에 해당되는 등근 산봉우리 하나가 솟아있는 모습으로 형상화 되어야 한다. 와룡면 이상리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멀리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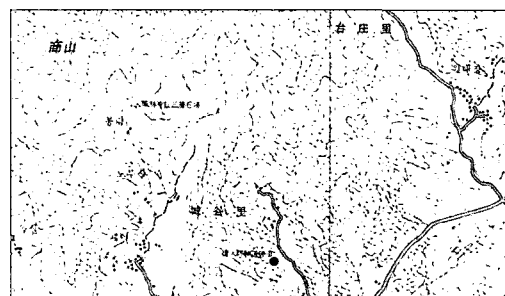


그림 11. 모란꽃이 반쯤 피어 있는 형
(도엽: 웅천 NJ52-14-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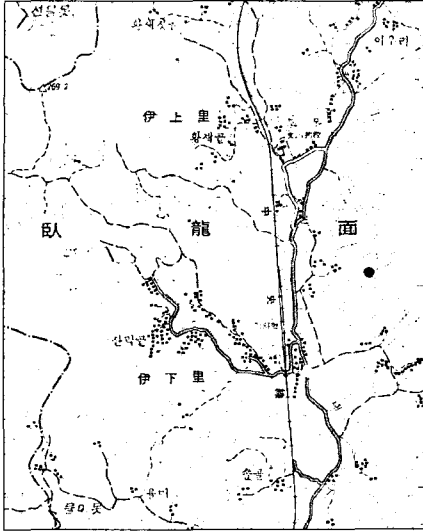


그림 12. 구름 속에 달이 떠 있는 형
(도엽: 웅천 NJ52-14-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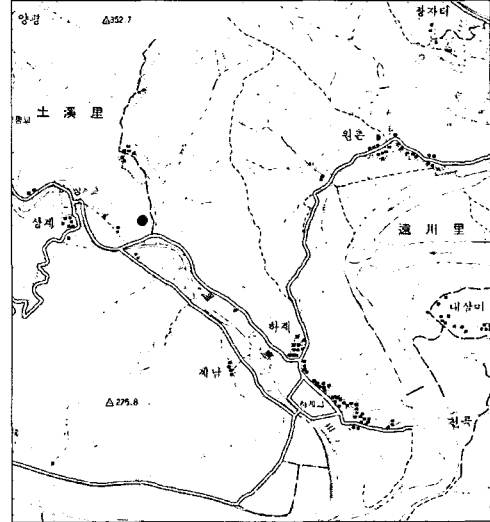


그림 13. 등잔불이 등잔에 달려 있는 형
(도엽: 예안 NJ52-14-12-1)

가산이 보인다. 학가산은 태백산으로부터 흘러온 안동의 명산으로서 여러 사람의 시선을 잡게 되는데 운중반월혈에서 바라보면 구름 속에 떠 있는 형상이다. 이를 보고 명당의 조화로운 특징이라고 한다. 이상리는 해발고도 250m 정도의 낮은 야산이 남북방향의 하천을 따라 길게 펼쳐져 있어 운중반월이 제대로 나타난다. 낙동강으로 유입하는 송야천이 멀리 남북으로 길게 흐르지만 유량이 적어 산수가 아주 균형있게 배치되어 있다(그림 12).

(11) 등잔불이 등잔에 달려 있는 형
(괘등형, 卦燈形)(그림 2의 ⑬)

등잔불이 달려있는 형은 복중형이나 금반형과는 다르다. 주산으로부터 별 기복없이 혈처까지 일직선으로 짧은 능선이 뻗어있으며 그 중간지점에 혈처가 나타난다. 그리고 좌우의 용호가 에워싸게 되지만 좁은 협곡이 앞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괘등형은 잘못하면 득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므로 득을 너무 큰 하천이 좌우로 펼쳐져야 한다. 그것이 균형있는 모습이다. 또한 안산은 촛불에 해당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퇴계의 유탉이 괘등형이다. 낙동강 본류, 특히 안동호에 유입하는 온혜천을 따라 상계에 이르면 두 갈래의 지류가 보이는데 그 위로 높이 솟은 주산이 나타난다. 주산은 몇 번의 기복을 거쳐 이룬 것이다. 주산으로부터 길게

뻗은 언덕에서 앞을 보면 온혜천이 낙동강 지류로 유입하는 것을 보게 된다(그림 13).

(12) 칩닝쿨에 꽃이 피어 있는 형
(갈화반개형, 葛花半開形)(그림 2의 ⑭)

와룡면 서현리 오로봉 아래에 나타난다. 오로봉의 다른 한 능선이 우무실로 뻗게 되는데 그것이 안산, 즉 득을 이룬다. 득을 너무 겹겹히 펼쳐진 조산 너머로 낙동강 본류가 보이지만 대부분의 명당이 그러하듯이 수구가 보이지 않는다. 주산으로부터 길게 구불거리는 능선을 따라 가다가 어느 한 곳에 혈처가 맺힌다. 그래서 갈화반개형은 꽃채인 모란반개형이나 연화부수형과 같이 명당을 겹겹이 에워싸게 되며 꽃잎을 형상화하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혈처는 안정된 곳에 놓여 있게 된다(그림 14).

(13)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
(금계포란형, 金鷄包卵形)(그림 2의 ⑳)

도산면 온혜리 상촌에 금계포란형이 나타난다. 상촌 앞으로 흐르는 온혜천과 그 지류가 합수하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데 주산 아래 안정된 장소에 금계포란형이 맺혀있는 것이다. 온혜리 앞산이 370m로서 상당히 높지만 좌향이 두 하천의 합수 지점으로 향하여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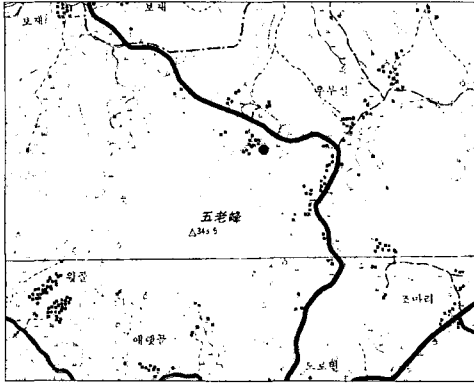


그림 14. 칠성굴에 꽃이 피어 있는 형
(도엽: 안동 NJ52-14-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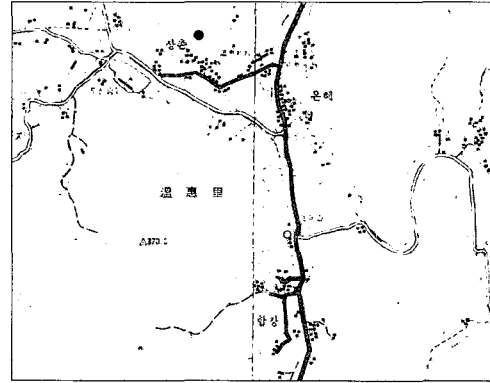


그림 15.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
(도엽: 예안 NJ52-14-12-1)

가 잘 이루어져 1급 명당의 균형적인 형태를 지니게 된다. 주산에서 걸라져 나온 나즈막한 야산이 좌우를 감싸게 되며 전개되어있다. 닭이 모이를 먹는 마당(외당)과 알을 품고 있는 둥지(내당) 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어 금계포란형이라고 한다. 이는 명당의 조화로운 특성이다(그림 15).

(14) 학이 냇가로 내려오는 형

(가학조천형, 嘉鶴朝川形) (그림 2의 ㉔)

가학조천형, 이른바 학이 이른 아침 먹이를 찾아 냇가로 내려오는 형은 비학형과 비슷한 형체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비학형과는 달리 혈처 앞으로 큰 강물이 보여야 하면 반드시 주산으로부터 입수까지 경사가 가파르고 물을 향하여야 한다. 이것이 산수의 균형있는 특징이다. 와룡면 산야리 솔청 뒷산에서 가학조천형이 나타난다. 460m에 미터의 주산은 길게 남서 방향으로 뻗어내리게 되는데 바로 그 앞으로 낙동간 지류가 골짜기를 형성하게 된다. 보투골에서 나온 낮은 안산이 득을 이루고 그 너머로 물이 보이게 되어 가학조천형이 나타난다. 그 혈은 학이 내려앉는 것처럼 회룡과 기복을 이루어 그 끝부분에 혈처를 이루어 낸 것이다. 해발고도 250m 정도에 위치한다(그림 16).

(15) 거북이 물에 들어가는 형

(영구입수형, 靈龜入水形)¹¹⁾ (그림 2의 ㉕)

거북형은 금반이나 복부와 비슷하게 보일 정도로 넓고 편편하게 보이는 안정된 구릉 상에 위치한다. 와룡면 주진리 주진교 부근에 나타나는 영구

입수형은 주산으로부터 거북이가 느릿느릿 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는 곳에 혈처가 나타난다. 바로 가까이 큰 강물이 흐르고 있어야 한다 혈처를 좌우로 에워싸는 산이 있지만 길지 않으며 바로 앞 가까운 곳에 낙동강 본류, 지금은 안동댐에 의하여 바뀌어 버린 안동호가 위치한다. 안동호 너머에 조산이 겹겹이 펼쳐진다. 금반이나 복부도 앞에 득수를 이루는 강이 나타나야 하지만 거북형과 같이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은 산수의 균형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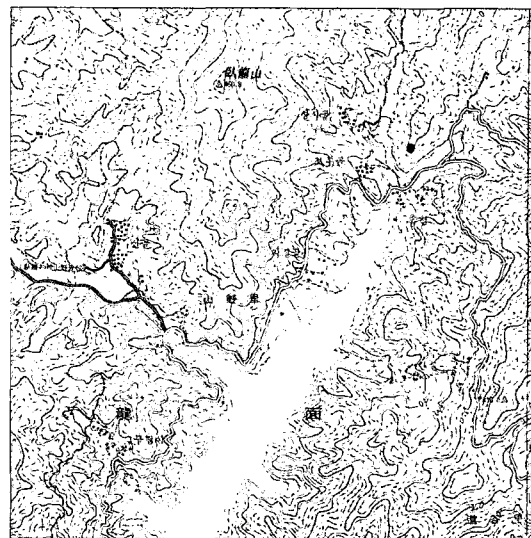


그림 16. 학이 냇가로 내려오는 형
(도엽: 남선 NJ52-14-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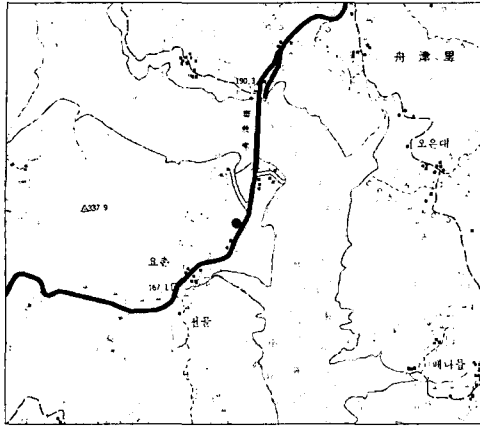


그림 17. 거북이 물에 들어가는 형
(도엽: 예안 NJ52-14-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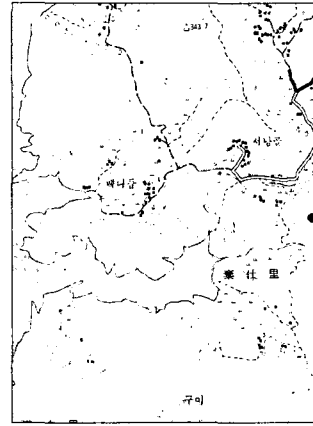


그림 18.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
(도엽: 예안 NJ52-14-12-1)

(16)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
(비룡상천형, 飛龍翔天形)(그림 2의 ㉞)

용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넓적하고 긴 구름이 기복과 회룡을 반복하다가 어떤 지점에서 구름이 하늘로 향하거나 물을 향하여야 한다. 물 위의 하늘을 향하는 경우를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비룡상천형: 飛龍翔天形) 또는 용이 바다를 향해 날아가는 형(비룡망해형: 飛龍望海形)이라고 하며, 물위의 작은 언덕 또는 물속을 향하는 경우를 다섯 룡이 구슬을 다투는 형(오룡쟁주: 五龍爭珠) 또는 물 속을 향하는 형(잠룡: 潛龍)이라고 부른다. 구름이 길게 이어지므로 긴 골짜기를 또 다른 구름이 에워싸게 되며 앞을 바라보면 상당히 시야가 탁 트이게 된다. 비룡상천의 경우는 안산이 없지만 나머지는 여의주에 해당되는 작은 섬이나 동산, 또는 안산이 주변에 나타나 물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예안면 기사리 서당골에 나타나는 것은 비룡상천형이다. 멀리 일월산으로부터 큰 능선이 이어져 낙동강 본류에 이르렀는데 큰 물을 앞에 두고 기사리에서 능선이 심하게 기복을 이루며 하늘을 향해 치솟는 곳에 바로 비룡상천형이 나타나게 되었다(그림 18).

(17) 큰 뱀이 숨어있는 형
(장사은산형, 長巳隱山形, 그림 2의 28)

뱀의 형태는 주산으로부터 길게 구불거리는 능선이 비교적 짧게 전개될 때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뱀의 형태는 앞으로 들판이 전개되어 어느 정도

득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뱀의 머리처럼 생긴 혈처에서 앞으로 낮은 안산이 길고 나즈막하게 전개될 때 이를 뱀이 개구리 울음을 듣는 형(장사청와형: 長蛇聽蛙形)이라고 하거나 큰 뱀이 구름 뒤에 숨어 있는 형(장사은산형: 長巳隱山形)이라고 한다. 예안면 도목리 구미에서 이러한 전형이 나타난다. 동서로 길게 펼쳐져 있는 250미터의 능선에서 뱀의 형체를 한 하나의 가지가 흘러나와 뱀혈을 이루어내고 있다. 그 앞으로 골짜기가 전개되며 안산이 나타난다. 바로 이것이 반개방적인 특징이다(그림 19).

(18) 벌이 집을 지은 형
(봉소형, 蜂巢形, 그림 2의 ㉞)

봉소형은 벌이 나뭇가지에 벌집을 짓고 있는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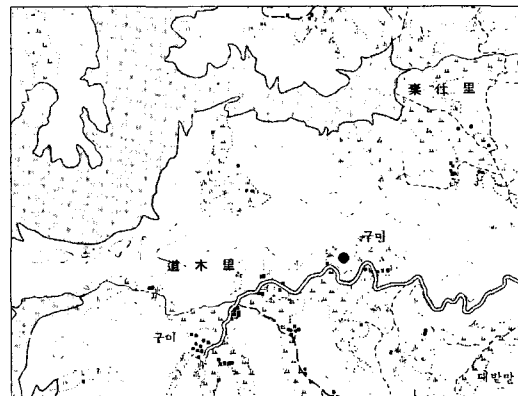


그림 19. 큰 뱀이 숨어 있는 형(도엽: 예안 NJ52-14-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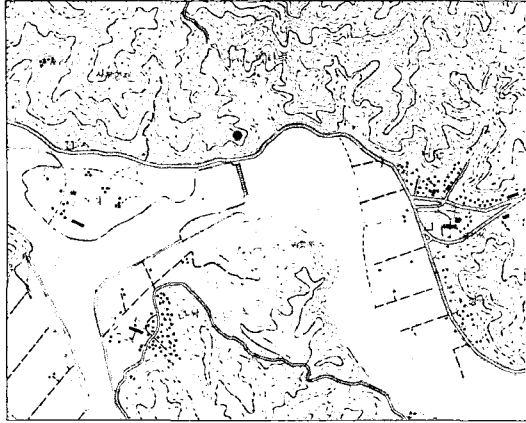


그림 20. 별이 집을 지은 형(도엽: 남선 NJ52-14-12-3)

태를 말한다. 좌우로 길게 뻗은 능선 한가운데에서 별집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작은 능선이 흘러나온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혈처 앞으로는 별이 날아들어 올 수 있도록 탁 트여 있어야 한다. 임하면 천전리 비리실 부근에 나타나는 봉소형은 낮은 구릉이 겹겹이 좌우를 에워싸며 반변천에 해당되는 득수를 건너 꽃처럼 생긴 조산이 펼쳐지므로 균형있는 특성을 보여준다. 혈처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그림 20).

(19) 봉이 날아가는 형
(비봉형, 飛鳳形, 그림 2의 ㉓)

길안면 천지리에서 청송으로 가는 길목 산달 뒷산에 나타난다. 혈처에서 앞을 바라보면 길안천을 가로지르게 된다. 주산으로부터 흘러나온 평평하고 낮은 구릉 위에 혈처가 놓여 있어 안정되어 보이며, 좌우로 산자락이 에워싸고 있다. 양옆의 낮은 골짜기에서 흘러나온 작은 물줄기는 길안천에 합류하게 되는데 합류하기까지의 작은 골짜기는 명당의 반개방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길안천 너머 천지리의 넓은 들판 너머에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안산이 봉소로 형상화되기에 충분하다. 작은 개울과 큰 하천을 건너도록 되어 있어 균형적인 특징이 나타난다(그림 21).

2) 음택 명당 풍수 경관의 특징

낙동강, 반변천, 길안천 등 하천과 그의 지류, 낮은 구릉, 완만한 사면 및 높은 배후 산지로 이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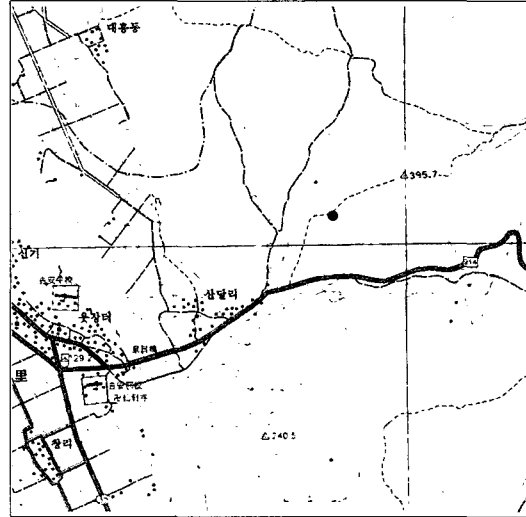


그림 21. 봉이 날아가는 형(도엽: NJ52-14-19-2)

져 있는 안동 지역은 봉 학 꿩 등의 날짐승, 모란 연꽃 취녕쿨 등의 꽃, 닭 등의 길짐승, 거북 뱀 등의 들짐승, 등잔 가마솥 밥상 등의 물건, 기타 용, 달 등 19개의 명당 형태가 나타난다. 이들 개별 음택 명당 형태와 그 특징으로부터 음택 명당 풍수 경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일반화할 수 있다.

첫째, 명당에서 앞산(안산이나 조산)까지 반개방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즉, 명당에서 앞산을 바라보면 안산이 나즈막하여 멀리 조산까지 보이는 특징을 말한다. 각 형태마다 혈처에서 안산까지의 거리에 따라 반개방성의 정도가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앞이 꼭 막혀서는 되지 않는다. 학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형, 학이 냇가로 내려오는 형, 거북이 물에 들어가는 형,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 등은 반개방형보다는 개방형에 가깝다.

둘째, 명당을 에워싸고 있는 산줄기들의 중첩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혈처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산이 겹겹이 에워싸고 특히 안산과 조산이 3중첩되어야 한다. 꽃잎이 겹겹이 에워싸는 것처럼 형상화된 모란형이 대표적이다. 각각의 형국에 따라 중첩성의 정도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중첩성을 지향한다. 좌우 용호의 중첩성이 크게 강조되는 형태는 모란꽃이 반쯤 피어 있는 형, 구름 속에 달이 떠 있는 형, 취녕쿨에 꽃이 피어 있는 형, 큰 뱀이 숨어 있는 형, 별이 집을 지은 형 등이다.

셋째, 혈처와 명당 그 자체의 모습에 안정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주산에서 다양하게 펼쳐까지 입수하게 되지만 혈이 맺혀 있는 곳은 밭공기를 엮어 놓은 것 같이 등글고 편평하여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평이 매를 피해 숲에 숨는 형, 등잔불이 달려 있는 형, 거북이 물에 들어가는 형 등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들은 약간 가파른 능선에 위치한다.

넷째, 명당을 에워싸고 있는 산줄기 상의 봉우리 모습에 조화로운 특징이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조화성이란 형태에 걸맞는 봉우리나 산이 주위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뱀형태는 개구리와 같은 안산이, 복부는 주위에 부싯돌과 같이 생긴 산봉우리가, 금반은 아름다운 여인을 형상화하는 옥녀봉 같은 봉우리가, 봉소(蜂巢)는 아름다운 꽃처럼 생긴 산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형태가 조화성의 특징을 갖는다.

다섯째, 전후좌우의 대칭적인 곳에 대개 펼쳐가 맺히며, 산 너머에 물이 나타나지만 산과 균형을 이룰 정도로 수량이 흐른다. 또한 물의 경우는 항상 명당을 향하여 활처럼 휘어감아 도는 모습으로 흐르며 수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를 균형적인 특징이라고 한다. 안동지역은 반변천, 길안천, 낙동강 등의 큰 하천이 흐르므로 웬만하면 득수를 이루게 된다.

안동 지역에서 나타나는 음택 명당은 19개 형태 모두가 반개방성, 중첩성, 안정성, 조화성, 균형성의 5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풍수지리의 기본 원리인 장풍(藏風)과 득수득파(得水得破)를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반개방적이고 중첩적이며 조화로운 특성은 명당이 바람을 잘 거둬들여 갈무리할 수 있게 되고, 안정성이며 균형적인 특징은 산으로 둘러싸인 명당이 물을 잘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궁극적으로 태양에너지와 순환하는 물, 그리고 그 순환을 담아내는 땅(한동환 외, 1994), 이 세가지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인 지기를 얻기 위해서 산수가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안동지역에 있어서 이른바 명당이라고 하는 음택 명당 풍수 경관을 조사하여 그 형태

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지역으로 안동 부근을 선정하였다. 안동문화원에서 펴낸 『안동의 분묘』에 나오는 분묘와 예천 일부 묘지 및 다양한 명당 유형을 소개하기 위하여 보충한 묘지 등을 대부분 야외조사하고 관찰된 사항을 1:25,000 지형도를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명당 연구는 기, 마음, 이기론, 형기론 등 다양한데 이 연구는 형기론에 의하여 연구하였다. 형기론은 간룡법, 장풍법, 득수법, 좌향론, 점혈법으로 구성되며 형기론으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형국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게 되었다. 다양한 형국에 대한 판별은 수차례의 답사와 체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필자의 주관이 작용하였다고 본다.

다양한 형국에 대한 이해는 경관론적 이해이며 상당히 풍수지리의 본질에 접근하게 된다. 명당을 구성하는 산, 수, 방위의 특징을 이해한다는 것은 (1) 음택 명당을 중심으로 하여 앞산(안산과 조산)까지 시야가 어떠한가? (2) 음택 명당을 산줄기(청룡과 백호)가 어떻게 에워싸고 있는가? (3) 음택의 펼쳐와 명당 그 자체의 모습은 어떠한가? (4) 음택 명당을 에워싸고 있는 산줄기 상의 봉우리 모습이 어떠한가? (5) 음택 명당을 중심으로 하여 볼 때 묘지의 방향은 어떠한가? 물은 어떻게 흐르는가? 하는 것을 말하게 되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지형도 상에서 음택 명당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안동지역은 태백산에서 소백산을 잇는 낙동정맥 상의 문수산(1206m)에서 하나의 지맥이 남쪽으로 흘러 태자산, 박달산, 오적산, 학가산(870m), 보문산(643m), 검무산(331m)을 이루어내어 안동의 서쪽 산줄기를 형성하며, 태백산에서 백병산, 일월산, 주방산(주왕산), 보현산, 황학산, 오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우측을 이루어내어, 이들이 우백호와 좌청룡을 이루어 내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안동의 산세에 따라 낮은 구릉, 완만한 사면 및 높은 배후 산지가 전개되며 낙동강 본류와 지류가 흘러 다양한 유형과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안동의 경우는 날짐승(봉, 학, 꿩), 꽃(모란, 연꽃, 칙닝쿨), 길짐승(닭), 들짐승(거북, 뱀), 물건(등잔, 가마솥, 밥상), 용, 달 등이 나타난다. 이

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크게 낙동강 본류 이북 쪽에 집중한다. 이들 명당은 고도 상으로 해발고도 100~400m 부근에 대부분 입지한다. 이들 개별 음택 명당 형태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음택 명당은 앞산(안산과 조산)까지 시야가 반개방적이며, 산줄기(청룡과 백호)가 중첩적으로 에워싸고 있으며, 혈처와 명당 그 자체의 모습이 안정적이며, 주변의 산봉우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물을 안을 수 있도록 하는 균형성의 5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태조산, 중조산, 소조산을 거쳐 주산 아래 산이 겹겹이 에워싸게 되고, 계곡물의 여러 줄기가 합수하고 물이 역류하지 않으며 잘 감아도는 곳이 명당이다. 반개방성, 중첩성, 안정성, 조화성, 균형성의 5가지 특징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명당의 특징은 명당의 기본적인 원리는 장풍(藏風)과 득수득파(得水得破)원리를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개방적이고 중첩적이며 조화로운 특성은 명당이 바람을 잘 거둬들여 갈무리할 수 있게 하고, 안정성, 균형적인 특징은 산으로 둘러싸인 명당이 물을 잘 얻을 수 있게 하는 곳이다.

낙동강 본류를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지류가 형성되어 있는 안동지역이 하늘이 내린 길지라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곳을 발견하기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안동지역의 명당에 관하여 형기론 이외의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족보, 현지 기록 문헌, 증언 등으로 명당을 선정하고 이들의 특징이 기술되면 풍수 연구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강암을 기반으로 한 안동의 침식분지 지형등의 자연환경이 명당의 입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환경부, 1998).

註

- 1) 동행한 풍수인은 부여 출신 여산(旅山) 장지환(張地煥)옹(향년 86세)으로 그의 명당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일관성있고 체계적이었다.
- 2) 이기론과 달리 자연 현상에 빗대어서 산을 해석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인 형기론은 중국의 풍수지리와 차이점이 많은 우리 풍수지리의 고유한 면이다(최창조, 1984).

이기론(理氣論)의 바탕이 된 음양오행설보다는 산을 직접 의인화하고 의물화하는 것 보다 손쉽게 때문에 형기론이 먼저 성립되었고 나중에 이기론으로 체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설득력있다. 또한 풍수지리의 논리가 중국에서는 이기론으로 발전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태산 준령보다는 자그만한 들을 낀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형기론으로 발전하였는지도 모른다.

- 3) 영남지방에서 취락비보의 핵심적인 기능이 수구비보(水口禳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풍수의 형태론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최원석, 2000).
- 4) 안동의 분묘에 수록된 분묘는 114개소이다. 이들 이외 몇 개 소를 추가 조사하였다.
- 5) 이들이 단순히 산의 모습에 비유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자연 생태계에서의 생태와 의미에 부합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뱀의 경우 자신의 먹이인 개구리를 쫓아가는 모습이 산에 투영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먼 뒷 산의 주산에서 개구리를 쫓아가기 위해 길게 구불거리는 구릉과 앞 들판에는 도망가는 개구리인 독산(獨山)이 배치되어 있을 때 뱀이 개구리를 쫓아가는 체형이라고 한다. 이를 한자로는 생사추와형(生蛇追蛙形)이라고 한다. 이때 뒤쳐 도망가는 개구리의 한발자욱 앞으로 좌향을 놓아야 하며 뱀의 눈에 해당되는 곳에 접혈해야 한다. 큰 내(川)가 있다던지 돼지 모양을 한 산이 앞에 있다던지 하면 명당이 될 수가 없으며 그 국의 규모와 후룡의 체적(體迹)에 따라 발복의 시기와 기간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뱀이 힘차게 먹이를 다투어가는 체형(體形)으로 산수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좌우의 용호와 전안(前案)에 따라 산과 물이 에워싸고 있어야 한다(장지환).
- 6) 명당이 하나의 형국이 되기란 쉽지 않다. 비봉형에서는 봉이 등지를 양지 바른 곳에 트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좌향은 북향이 되어야 한다든지, 북호면구형에서는 호랑이는 줄고 있는 개는 먹지 않으므로 후룡이 힘차게 와서 멈춰있어야 한다든지 패등형에서는 등잔불은 서북풍을 피해야 하므로 남향에다 용호가 뚜렷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 등이 산을 해석할 때 그 형국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다시 말해 생물의 행태나 무생물의 문화적 의미에 따라 형국이 결정되므로 형기론적 풍수지리는 소박하다 못해 자연스러움이 깃들여 있다고 하겠고 탁월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을 일관된 논리로 해석하며 관별하기란 힘들기 때문에 일생을 두고 답산하여도 오관할 수 있다. 모란 꽃이 활짝 피어 있는 형국, 이른바 모란만개형(牡丹滿開形)은 주산에서 화지에 이르는 용이 반듯해야 하고 꽃심에 혈처를 정한다. 전안(前案)으로는 구경해 주는 선인이나 모란꽃의 향내를 맡고 날아오는 나비 등에 해당되는 산이 앞에 배치되어 있어야 제일의 명당으로 꼽을 수 있다고 한다.
- 7) 번호별 매장자는 다음과 같다. ①鄭賜, ②金淮, ④鄭琢, ⑤權建, ⑥金係權, ⑦柳雲龍, ⑧柳復起, ⑩張興孝, ⑪權幸, ⑬李泥, ⑭洪宇定, ⑮金氏, ⑯金氏, ⑰金洙, ⑱金富仁, ⑳李岬, ㉑黃氏, ㉒柳氏, ㉓具氏, ㉔柳正源, ㉕權氏, ㉖金禮範, ㉗林稷, ㉘金龜 다양한 유형을 이 연구에서 소개하기 위하여 「안동의 분묘」에 나오지 않는 이들도 포함시켰다.

- 8) 봉(鳳)과 관련된 형국에는 봉이 등지를 뜬 형(봉소형, 鳳巢形), 봉이 날아가는 형(비봉형, 飛鳳形), 봉이 등지로 돌아오는 형(비봉귀소형, 飛鳳歸巢形) 등이 있다고 한다.
- 9) 봉소나 비봉귀소형의 경우는 대부분 남향이지만 비봉형의 경우는 북향 혹은 서북향이 되어야 한다.
- 10) 뱀과 관련된 형국으로는 뱀이 개구리를 쫓아가는 형(생사추와, 生巳追蛙), 큰 뱀이 산속에 숨어 있는 형(장사은산, 長巳隱山), 뱀이 개구리 소리를 듣는 형(생사청와, 生巳聽蛙), 뱀이 꼬리를 꼬고 앉아 있는 형(반사, 蟠巳), 뱀이 머리를 들고 있는 형(사두형, 巳頭)등이 있다고 한다.
- 11) 거북이형태에는 거북이가 꼬리를 끌면서 물에서 나오는 형(영구예미형: 靈龜曳尾形)도 있다.

文 獻

김동규(역), 1994, 人子須知(徐善繼, 徐善述), 명문당, 서울.

박시익, 1999,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서울.

서주석(편), 1995, 안동의 분묘, 도서출판 삼경인쇄(주), 안동.

송길룡, 1995, 나경과 산지생기, 오성문화사, 서울.

윤흥기, 2001, "왜 풍수는 중요한 연구주제인가?," 대한지리학회지, 36(4), 343-355.

이완규, 2001, 안동의 풍수기행, 와혈의 땅과 인물,

예문서원.

_____, 2001, 안동의 풍수기행, 와혈의 땅과 인물, 예문서원.

장익호, 1983, 유산록:풍수지리 천년을 정리한다, 종문사, 서울.

장지환, 여산록, (미출판).

최원석, 2000, 영남지방의 비보,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창조, 1984,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서울.

_____, 1992,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서울.

_____(역), 1993, 청오경. 금낭경: 풍수지리학의 最古 經典, 민음사, 서울.

한동환·성동환·최원석, 1994, 자연을 읽는 지혜: 우리땅 풍수 기행, 푸른나무, 서울.

허경진 역, 1991, 擇里志(李重煥), 서울.

환경부, 1998, 안동·예천(2-05)의 자연환경: 용두산·봉수산·와룡산·천등산·학가산·나부산, 정부간행물, 서울.

최초투고일 03. 01. 11
 최종접수일 03. 03. 14